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조은정*, 박인희**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강사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국문초록

목적:

연구방법: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3학년), (4-6학년), (7학년)

결과: 45.0%, 50.4%, 39.8%, 9.7%
13.2%, 3.5%, 2.13(±0.61)

35%, 25%, 19%, 16%
결론: 가

주제어: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은 만 18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그리고 가족폭력 등의 외상성 스트레스 상황을 의미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2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국내에서는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비율이 78.9%(Ryu,

교신저자: 박인희(park0200@shinsung.ac.kr)

접수일: 2023.11.02.

|| 심사일: 2023.11.13.

|| 게재확정일: 2023.12.08.

Lee, Chung, Song, & Lee, 2017)로 미국의 61%(Merrick & Guinn, 2018), 영국 46.4%(Bellis et al., 201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의 반복 노출은 뇌의 변연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Pervanidou & Chrousos, 2007),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조절력을 약화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acker, O'Donnell, & Meaney, 2022). 이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고(Branco & Linhares, 2018), 심리적 장애 발병으로 이어져(Nurius, Green, Logan-Greene, & Borja, 2015)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겪은 부모는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어(Branco & Linhares, 2018)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u & Wang, 2015). 특히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양육스트레스를 높여(Steele et al.,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모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대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Niu, Liu, & Wang, 2018). 부모의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재 자녀의 탓으로 귀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져 자녀 학대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Rodriguez, 2011).

또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반복적 노출은 그들이 향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할 가능성이 높다(Madigan et al., 2019). Lee와 Chio(2022)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으면 자녀에게도 학대 및 방임을 가할 확률이 높아지며, Bartlett, Kotake, Fauth와Easterbrooks(2017)의 종단 연구에서도 학대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를 학대한 어머니들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4회 이상 겪은 부모는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크고, 이는 자녀 방임의 원인 될 수 있다(Murphy et al., 2014). 따라서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Pournaghash-Tehrani & Feizabadi, 2009)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되어야 한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은 아동기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험으로, 특히 중복적인 경험의 심각성은 이후의 생애 발달 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Ryu

et al., 2018).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이혼가정 등 단일 경험 유형으로 연구해 왔다. 이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정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특정 단일 경험 학대 유형에 국한된 접근은 전 생애 발달에서 중복되는 학대나 폭력 피해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Finkelhor, Ormrod, Turner, & Hamby, 2005).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기존의 10항목에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다양성이 확장된 버전으로 세대 내 어려움, 지역사회 폭력과 집단폭력 경험 등을 포함한 13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척도 도구(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 ACE-IQ)를 개발하였다(WHO, 2021).

국내에서는 아동학대 판정사례 건수가 2017년 22,367건에서 2019년도 30,045건, 2021년 37,605건으로 증가하였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율이 82.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외상성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유발하고, 이는 세대 간 전이되어 영향을 미친다(Ryu et al., 2018). 이러한 문제는 특히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누적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해지므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부모에 대해 잠재계층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만 분석하였으며, 높은 학대 폭력경험 집단이 낮은 부정적 경험 집단보다 자녀학대 및 방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 Ryu, 2021). 또한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현재 자녀학대와 또래폭력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었으나(Ryu et al., 2018), 이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누적 점수에 따른 위험군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저위험군(ACE 1-3개), 중위험군(ACE 4-6개), 고위험군(ACE 7개 이상)으로 분류하여 자녀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어머니 위험군별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2018년 ‘아동 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이다.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구 및 가구를 2단계 층화추출 방법을 적용하였다. 조사의 표본추출 시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적용한 집계구를 선정하여, 19~59세 성인인구 수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여, 가구선정 시에는 집계구 별로 계통추출법을 이용한 가구 중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의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Ryu, Lee, Chung, Song, & Lee, 2017).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에 응답한 성인 4,008명 중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횟수가 1개 이상인 어머니 1,937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자녀 수, 교육수준, 가구소득, 경제활동 형태, 체벌 허용도로 분류하였다. 자녀 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전문학사, 4년제 대학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가구 소득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형태는 무직, 사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무급 가족종사자 구분하였고,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다고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 국제 설문지(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 ACE-IQ)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성인의 삶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WHO에서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WHO, 2021). ACE-IQ 원척도를 류정희 등이 번안 및 활용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Ryu, Lee, Chung, Song, & Lee, 2017).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기 동안의 경험을 회고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학대 2문항, 신체학대 2문항, 성학대 4문항, 정서방임 2문항, 신체방임 2문항, 가족구성원의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 경험 1문항, 가족구성원 중 수감경험 1문항, 부모의 별거 혹은 사망경험 2문항, 가족구성원 중 만성우울 경험 1문항, 가정폭력 목격경험 3문항, 또래폭력피해경험 1문항, 지역사회폭력 목격경험 3문항, 집단폭력 피해 및 목격경험 6문항 등 총 13개 항목, 30문항을 활용하였다. ACE-IQ 분석가이드(guidance for analysing ACE-IQ) 지침을 따라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있음’(1), 경험이 없는 경우 ‘없음’(0)으로 재코딩한 후 각 문항 값을 합산하여 측정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1~13점이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누적 점수로 위험군을 분류한 저위험군(ACE 1-3개), 중위험군(ACE 4-6개), 고위험군(ACE 7개 이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기 학대 경험의 Cronbach's α 는 .69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중 부모의 고통의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12문항 중에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수정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매우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측정되었고,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다. 응답받은 값을 역코딩하여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4)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자녀의 학대 및 방임은 Straus와 Hamby(1997)가 개발한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CTSPC) 척도 중 일부로 구성되었다. CTSPC 원척도는 부모가 본

인의 자녀에게 가한 가해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비폭력적 훈육, 방임 등을 부모가 가하였는지 3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Straus & Hamby, 1997),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설문지에는 13문항(정서적 학대 2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방임 4문항)만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년 간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대상으로 가해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Ryu, Lee, Chung, Song, & Lee, 2017). 자녀의 학대 및 방임 여부를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 '있음'(1), 한 번도 없었던 경우 '없음'(0)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친 조사 안내문과 연구 참여자 동의서를 제공하여 조사 진행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7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로 진행되었고,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문항의 민감성과 응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대 및 폭력 관련 문항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태블릿 PC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후 제공한 원시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1041078-202109-HR-281-01)을 받은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시자료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코드화 된 원시자료 파일로 받았으며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하드웨어를 통해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IBM SPSS Inc, A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파악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로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정도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양육스트레스 정도 Table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40.18(±6.10)세였는데, 베이비붐 세대 이후인 1974년 이후 출생자는 61.8%, 베이비붐 세대인 1974년 이전 출생자는 38.2%였다. 자녀 수는 평균 1.55(±0.62)명이었는데, 자녀 1명은 51.4%, 자녀 2명은 42.5%, 자녀 3명 이상은 6.0%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39.1%, 2-3년제 대학 35.3%, 4년제 대학 이상은 25.5%였다. 가구소득은 평균 419.72(±125.36)만원으로, 300만원 미만 10.2%, 300~500만원 미만 62.5%, 500만원 이상 27.3%였다. 주거 취약층은 3.4%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96.6%가 해당되지 않았다.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근로자 31.9%, 임시·일용 근로자가 7.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13.5%, 무직·기타가 47.0%였다.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응답이 28.2%,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이 71.8%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risk groups for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hildren'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N=1,9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weighted %)	Mean ±SD
Age(year)	1974 after birth	1,202(61.8)	40.18 ± 6.10
	1974 before birth	735(38.2)	
Number of children	1	987(51.4)	1.55 ± 0.62
	2	849(42.5)	
	3	101(6.0)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745(39.1)	
	2 - 3 year college school	737(35.3)	
	4 - year college or higher	455(25.5)	
Monthly wage (10,000 won)	< 300	172(10.2)	419.72 ± 125.36
	300 - 499	1,170(62.5)	
	500	595(27.3)	
Employment	Regular worker	589(31.9)	
	Temporary worker	140(7.6)	
	Self - employment	212(13.5)	
	Inoccupation	996(47.0)	
Permissibility of corporal punishment	No	714(28.2)	
	Yes	1,223(71.8)	
ACE	Low risk(1 - 3)	1,037(50.4)	3.65 ± 2.15
	Moderate risk(4 - 6)	713(39.8)	
	High risk(7)	187(9.7)	
Emotional abuse	No	1,074(55.0)	0.45 ± 0.50
	Yes	863(45.0)	
Physical abuse	No	1,707(86.8)	0.13 ± 0.34
	Yes	230(13.2)	
Neglect	No	1,887(96.5)	0.04 ± 0.18
	Yes	50(3.5)	
Parenting stress			2.13 ± 0.61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총 13개 부정적 경험 중 평균 3.65개 (± 2.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위험군(1-3개)은 50.4%, 중위험군(4-6개)은 39.8%, 고위험군(7개 이상)은 9.7%였다. 자녀 정서적 학대는 45.0%가 경험하였고, 자녀 신체적 학대는 13.2%가 경험했으며, 자녀 방임은 3.5%가 경험하였다.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1~4점 범위로 측정된 결과 평균 2.13(± 0.61)으로 나타났다.

2.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의 정서적 ·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과 같다.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은 범주형 자료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더미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자녀 정서적 학대와 유의한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 .36, p < .001$), 자녀 신체적 학대와도 유의한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3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arenting stress, child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N=1,937)

Variables	ACE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Neglect	Parenting stress
	<i>r</i> (<i>p</i>)				
ACE	1				
Emotional abuse	.36(<.001)	1			
Physical abuse	.31(<.001)	.37(<.001)	1		
Neglect	.19(<.001)	.11(<.001)	.16(<.001)	1	
Parenting stress	.37(<.001)	.29(<.001)	.16(<.001)	.08(<.001)	1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 < .001$), 자녀 방임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19, p < .001$). 그리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37, p < .001$).

3.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차이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차이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학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p < .001$), 자녀수($p < .001$), 교육수준($p < .001$), 경제활동($p < .001$), 체벌 허용도($p < .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p < .001$)에 따라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1974년 이전 출생자의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고, 자녀는 많을수록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은 반면, 상용 근로자는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정서적 학대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에 따른 자녀의 신체적 학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p < .001$), 자녀수($p < .001$), 교육수준($p = .006$), 경제활동($p = .001$), 체벌 허용도($p < .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p < .001$)에 따라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1974년 이전 출생자의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고, 자녀는 많을수록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상용 근로자는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가장 낮았다.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에 따른 자녀의 방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p = .001$), 자녀수($p = .008$), 가구소득($p < .001$), 경제활동($p < .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p < .001$)에 따라 자녀 방임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1974년 이전 출생자의 자녀 방임율이 높았고, 자녀는 2명인 경우 자녀 방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자녀 방임율이 높았고, 경제활동 상태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자녀 방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상용 근로자는 자녀 방임율이 가장 낮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방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수($p = .001$), 교육수준($p < .001$), 경제활동($p = .005$), 체벌 허용도($p < .001$), 아동기 부정적 경험($p < .001$)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수는 1명보다 3명 이상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활동은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고,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N=1,9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Neglect	Parenting stress
		N(%)	N(%)	N(%)	Mean ± SD
Age(year)	1974 after birth	472(39.9)	104(10.9)	25(2.5)	2.11 ± 0.62
	1974 before birth	391(53.2)	126(17.0)	25(5.2)	2.15 ± 0.60
	<i>p</i> -value	<.001	<.001	.001	.274
Number of children	1 ^a	383(36.7)	108(10.7)	24(2.9)	2.08 ± 0.62
	2 ^b	426(52.6)	108(14.4)	26(4.8)	2.18 ± 0.59
	3 ^c	54(61.5)	14(26.5)	0(0.0)	2.20 ± 0.66
	<i>p</i> -value (Scheffé)	<.001	<.001	.008	.001 (a<c)
Educational attainment	Less than high school ^a	387(53.2)	104(16.2)	25(3.2)	2.17 ± 0.61
	2 - 3 year college school ^b	301(41.8)	84(12.1)	14(4.2)	2.15 ± 0.64
	4 - year college or higher ^c	175(36.7)	42(10.3)	11(3.2)	2.02 ± 0.58
	<i>p</i> -value (Scheffé)	<.001	.006	.492	<.001 (c<b,a)
Monthly wage (10,000 won)	< 300	70(39.4)	15(12.7)	4(2.0)	2.11 ± 0.66
	300 - 499	517(44.6)	129(12.2)	22(2.2)	2.12 ± 0.63
	500	276(48.0)	86(15.6)	24(7.2)	2.15 ± 0.56
	<i>p</i> -value	.102	.143	<.001	.559
Employment	Regular worker ^a	214(37.6)	70(9.2)	12(1.3)	2.06 ± 0.59
	Temporary worker ^b	72(56.1)	24(18.9)	9(5.4)	2.19 ± 0.51
	Self - employment ^c	117(46.2)	35(17.2)	11(10.3)	2.10 ± 0.56
	Inoccupation ^d	460(47.9)	101(13.8)	18(2.9)	2.17 ± 0.65
	<i>p</i> -value (Scheffé)	<.001	.001	<.001	.005 (a<b)
Permissibility of corporal punishment	No	158(17.2)	26(2.6)	8(2.4)	1.95 ± 0.68
	Yes	705(55.9)	204(17.4)	42(4.0)	2.19 ± 0.57
	<i>p</i> -value	<.001	<.001	.079	<.001
ACE	Low risk(1 - 3) ^a	292(29.8)	36(3.7)	9(1.1)	1.93 ± 0.63
	Moderate risk(4 - 6) ^b	425(55.2)	126(20.4)	22(5.0)	2.26 ± 0.52
	High risk(7) ^c	146(81.5)	68(33.3)	19(10.1)	2.60 ± 0.50
	<i>p</i> -value (Scheffé)	<.001	<.001	<.001	<.001 (a<b<c)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4.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 ·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서적 ·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4과 같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35%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보다 4-6개 (OR=2.91, $p<.001$)나 7개 이상(OR=9.30, $p<.001$)인 경우 자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25%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보다 4-6개 (OR=6.29, $p<.001$)나 7개 이상(OR=10.60, $p<.001$)인 경우 자녀 신체적 학대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 방임에 미치는 영

Table 4. The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children'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and neglect, parenting stress (N=1,937)

Dependent variables	ACE	OR	95% CI	p
Emotional abuse	Low risk(1-3)	1.00		
	Moderate risk(4-6)	2.91	2.33~3.64	<.001
	High risk(7)	9.30	6.08~14.23	<.001
Physical abuse	Low risk(1-3)	1.00		
	Moderate risk(4-6)	6.29	4.26~9.29	<.001
	High risk(7)	10.60	6.65~16.91	<.001
Neglect	Low risk(1-3)	1.00		
	Moderate risk(4-6)	5.21	2.56~10.62	<.001
	High risk(7)	10.43	4.62~23.56	<.001
Dependent variables	ACE	B		p
Parenting stress	Low risk(1-3)	0.00		
	Moderate risk(4-6)	0.30	.24	<.001
	High risk(7)	0.62	.30	<.001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약 19%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보다 4-6개(OR=5.21, $p<.001$)나 7개 이상(OR=10.43, $p<.001$)인 경우 자녀 방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의 효과를 보정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였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1-3개인 경우에 비해 4-6개($\beta = .24$, $p<.001$)나 7개 이상($\beta = .30$, $p<.001$)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IV. 고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방안과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18년 '아동기 생애경험 실태조사' 자료 중 19~59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의 횟수가 1개 이상인 어머니 1937명의 자료이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ACE는 어린시절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어린시절에 다양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CE 점수는 어린 시절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의 항목 수로 계산된다. ACE 점수에 따라 위험군을 나눌 수 있는데(Anda, Butchart, Felitti, & Brown, 2010), 1-3개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은 저위험군, 4-6개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은 중위험군, 7개 이상의 항목을 경험한 사람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저위험군이 50.4%, 중위험군이 39.8%, 고위험군이 9.7%이었으며, 이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아동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상자들 중 45.0%가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었고, 13.2%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었으며, 3.5%가 방임 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녀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하고, 양육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는 자녀학대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Bartlett, Kotake, Fauth, & Easterbrooks, 2017; Ryu et al., 2018), Lee 등(202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양육스트레스와 자녀학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Ryu 등(2017)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학대의 피해자가 된 부모는 감정조절, 양육 기술, 문제대처 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부모 역할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학대를 가하는 부모는 죄책감, 결과에 대한 두려움, 행동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 경험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린 시절 학대나 역경을 견뎌낸 개인이 스스로 부모가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 스타일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어,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병력이 있는 부모에게 정보제공지원, 감정적 지원과 전문가 치료상담, 약물 치료, 그룹치료 등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으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요인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녀의 생애주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받는 교육 수준은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자녀의 발달과 복지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애 주기별 부모 교육이 필요하겠다. 현재 부모교육은 어머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유아 아이 중심, 다양한 가족 환경을 고려되지 못한 점 등 정보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Kim et al., 2016). 특히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고, 임시·일용 근로자이며,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애 주기별 교육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제도를 마련한다면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 방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2명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자녀 방임에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Lotto, Altafim, & Linhares, 2023)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노출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및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 수는 1명보다 3명 이상인 경우,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으로는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체벌 허용도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재 자녀의 탓으로 귀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Rodriguez, 2011). 이처럼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스트레스 반응과 자기조절 능력을 감소되고, 사회적 지지 자원에 접근하는 어머니의 양육 능력을 방해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킨다. 이와같은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양육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인지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게 부정적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Altafim, & Linhares, 2019)으로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예방적 양육 프로그램의 필요하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저위험군(1-3개)보다 중위험군(4-6

개), 고위험군(7개 이상)인 경우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으로 자녀 정서적 학대 35%, 자녀 신체적 학대 25%, 자녀 방임 19%의 설명력을 보였고, 선형회귀분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16%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저위험군보다 중위험군에서 고위험군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자녀 방임을 더 가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78.9%가 하나 이상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경험하였으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지속적으로 흔하게 발생되었고(Ryu et al., 2018), Kim(2018)의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의 성인 59.7%가 하나 이상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에 노출되었고, 4개 또는 그 이상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16.4%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의 4개 이상으로 빈도수가 높은 경우 자녀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부모 별거 또는 이혼, 물질남용 등 현상이 나타났다(Merrick, Ford, Ports, & Guinn, 2018). 이는 폭력의 순환으로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부모의 폭력적 행동 생활양식을 학습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학습된 폭력적 행동 생활양식을 자녀에 폭력적 가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Park, 2021).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 연구에서 저위험군에서는 구조화된 매뉴얼 작업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목표를 달성하여 긍정적인 양육방식 교육을 적용하였고,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는 공공기관, 청소년 보호기관, 지역사회 단체, 학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며, 필수 교육 및 인증 프로세스, 정신치료 등 사례에 맞게 개입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신체적 폭력, 체벌, 방임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Gagné, Clément, Milot, Paradis, & Voyer-Perron, 2023). 이처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악순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자기 조절능력을 촉진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육아 방법에 대한 개입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고위

험군에 속한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력의 순환이 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개별적 심리 지원과 학대 및 방임의 문제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기 부정적 경험 위험군이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가진 어머니 위험군별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정서적·신체적 학대 및 방임,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며,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저위험군보다 중위험군, 고위험군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자기 조절능력을 촉진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육아 방법에 대한 개입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위험군에 따른 차별화 된 예방적 양육 프로그램의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도 실시된 단년도 원시자료로 5년 전의 수집된 자료로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최신의 자료로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회고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응답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어머니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현재 자녀의 학대 및 방임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변수들의 통제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한 어머니의 전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

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Altafim, E. R. P., & Linhares, M. B. M. (2019). Preventive intervention for strengthening effective parenting practice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2*, 160–172.
- Anacker, C., O'Donnell, K. J., & Meaney, M. J. (2022). Early life adversity and the epigenetic programming of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function.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6*(3), 321–333. doi:10.31887/DCNS.2014.16.3/canacker
- Anda, R. F., Butchart, A., Felitti, V. J., & Brown, D. W. (2010). Building a framework for global surveillance of the public health implicatio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1), 93–98. doi:10.1016/j.amepre.2010.03.015
- Bartlett, J. D., Kotake, C., Fauth, R., & Easterbrooks, M. A. (201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Do maltreatment type, perpetrator, and substantiation status matter? *Child Abuse & Neglect, 63*, 84–94. doi:10.1016/j.chiabu.2016.11.021
- Bellis, M. A., Hughes, K., Leckenby, N., Hardcastle, K. A., Perkins, C., & Lowey, H. (2015). Measuring mortality and the burden of adult disease associated with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England: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Public Health, 37*(3), 445–454. doi:10.1093/pubmed/dfu065
- Branco, M. S. S., & Linhares, M. B. M. (2018). The toxic stress and its impact on development in the Shonkoff's Ecobiodevelopmental Theoretical approach. *Estudos de Psicologia (Campinas), 35*, 89–98. doi:10.1590/1982-02752018000100009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4 April, 2021. Retrieved from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aces/>
- Finkelhor, D., Ormrod, R. K., Turner, H. A., & Hamby, S. L. (2005).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 Neglect, 29*(11), 1297–1312. doi:10.1016/j.chiabu.2005.06.005
- Gagné, M. H., Clément, M. È., Milot, T., Paradis, H., & Voyer-Perron, P. (2023). Comparative efficacy of the Triple P program on parenting practices and family violence against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41*, 106204. doi:10.1016/j.chiabu.2023.106204
- Kim, E. H.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association with adult health, mental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Kangwon.
- Kim, S. Y., Song, H. J., Seon, B. Y., Kim, Y. J., Nam, M., & Kwon, S. H. (2016). *A study on ways to revitalize parent education by life cycle*. Seoul: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 Lee, J. Y., & Choi, E. Y. (2022). Experiences of childhood abuse and parenting stress on offspring abuse and depression: The buffering role of children's social sup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2*(1), 125–145.
- Lee, J. Y., & Ryu, J. H.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es of parent'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hild maltreatmen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5*(1), 107–130.
- Liu, L., & Wang, M. (2015). Parenting stress and harsh discipline in China: The moderating role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 gender. *Child Abuse & Neglect, 43*, 73–82. doi:10.1016/j.chiabu.2015.01.014

- Lotto, C. R., Altafim, E. R. P., & Linhares, M. B. M. (2023). Maternal history of childhood adversities and later negative parenting: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4*(2), 662–683. doi:10.1177/15248380211036076
- Madigan, S., Cyr, C., Eirich, R., Fearon, R. P., Ly, A., Rash, C., ... Alink, L. R. (2019). Testing the cycle of maltreatment hypothesis: Meta-analytic evidence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1*(1), 23–51. doi:10.1017/S0954579418001700
- Merrick, M. T., & Guinn, A. S. (2018). Child abuse and neglect: Breaking the intergenerational link.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8*(9), 1117–1118.
- Merrick, M. T., Ford, D. C., Ports, K. A., & Guinn, A. S. (2018). Prevalen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from the 2011–2014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in 23 states. *JAMA Pediatrics, 172*(11), 1038–1044. doi:10.1001/jamapediatrics.2018.253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Key statistics on child abuse*. 21 April, 2022.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 Murphy, A., Steele, M., Dube, S. R., Bate, J., Bonuck, K., Meissner, P., ... Steele, H. (201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s) questionnaire and adult attachment interview(AAI): Implications for parent child relationships. *Child Abuse & Neglect, 38*(2), 224–233. doi:10.1016/j.chiabu.2013.09.004
- Niu, H., Liu, L., & Wang, M. (201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disciplin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 gender. *Child Abuse & Neglect, 79*, 1–10. doi:10.1016/j.chiabu.2018.01.017
- Nurius, P. S., Green, S., Logan-Greene, P., & Borja, S. (2015). Life course pathway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oward adult psychological well-being: A stress proce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45*, 143–153. doi:10.1016/j.chiabu.2015.03.008
- Park, A. L. (2021). The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depressive disorders and suicidal ideation in adulthood.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6*(1), 277–283.
- Pervanidou, P., & Chrousos, G. P.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igmund Freud's "trauma" to psychopathology and the (Dys) metabolic syndrome. *Hormone and Metabolic Research, 39*(06), 413–419. doi:10.1055/s-2007-981461
- Pournaghash-Tehrani, S., & Feizabadi, Z. (2009). Predictabilit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by earl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 417–422.
- Rodriguez, C. M. (2011). Association between independent repor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atolog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 631–639.
- Ryu, J. H., Jeon, J. A., Lee, S. J., Lee, J. Y., Chung, I. J., & Yoo, M. S. (2018). *Understanding experiences of abuse and violence among children and youths—A life course perspective*.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379.
- Ryu, J. H., Lee, J., Chung, I. J., Song, A., & Lee, M. J. (2017). *Understanding connections among abuse and violence in the life cours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49, 1–381.
- Steele, H., Bate, J., Steele, M., Dube, S. R., Danskin, K., Knafo, H., ... Murphy, A.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overty, and parenting stres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8*(1), 32–38. doi:10.1037/cbs0000034
- Straus, M. A., & Hamby, S. L. (1997). *Measuring physical &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the conflict tactics scales. 4 April, 2022. Retrieved from <https://eric.ed.gov/?id=ED4103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ternational Questionnaire(ACE-IQ). 4 April, 2022. Retrieved from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activities/adverse_childho

Abstract

The Effects of Materna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Risk Factors on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Cho, Eunjeong*, Ph.D., Park, Inhee**, Ph.D.

*College of Nursing, Jeju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maternal risk factors for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s well as parenting stress.

Methods : This i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tilizing raw data from the 2017 National Survey of Child and Family Life Experiences. A total of 1,937 mothers with at least on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were categorized into low-risk (1-3), moderate-risk (4-6), and high-risk (7 or more) group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and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Materna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ere 50.4% in the low-risk group, 39.8% in the medium-risk group, and 9.7% in the high-risk group. Child emotional abuse was 45.0%, child physical abuse was 13.2%, child neglect was 3.5%, and parenting stress was 2.13 (± 0.61) on averag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in the medium- and high-risk groups than in the low-risk group.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model explained 35% of child emotional abuse, 25% of child physical abuse, 19% of child neglect, and 16% of parenting stress.

Conclusion : The higher the risk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f parents, the more their children experience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child neglect, and parenting stress.

Key words :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Emotional abuse, Neglect, Parenting stress, Physical abuse